

9월중 전자수출입 개관

〈 본회 전자산업연구소 〉

9월중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125억 6,600만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7.0%(25억 6,700만달러) 감소하였고, 전자수출은 42억 9,900만달러 31.8%(20억 800만달러) 감소했다.

한편, 총수입은 116억 9,700만달러로 12.0%(15억 9,500만달러) 줄었고, 전자수입은 28억 5,600만달러로 24.5%(9억 2,400만달러) 줄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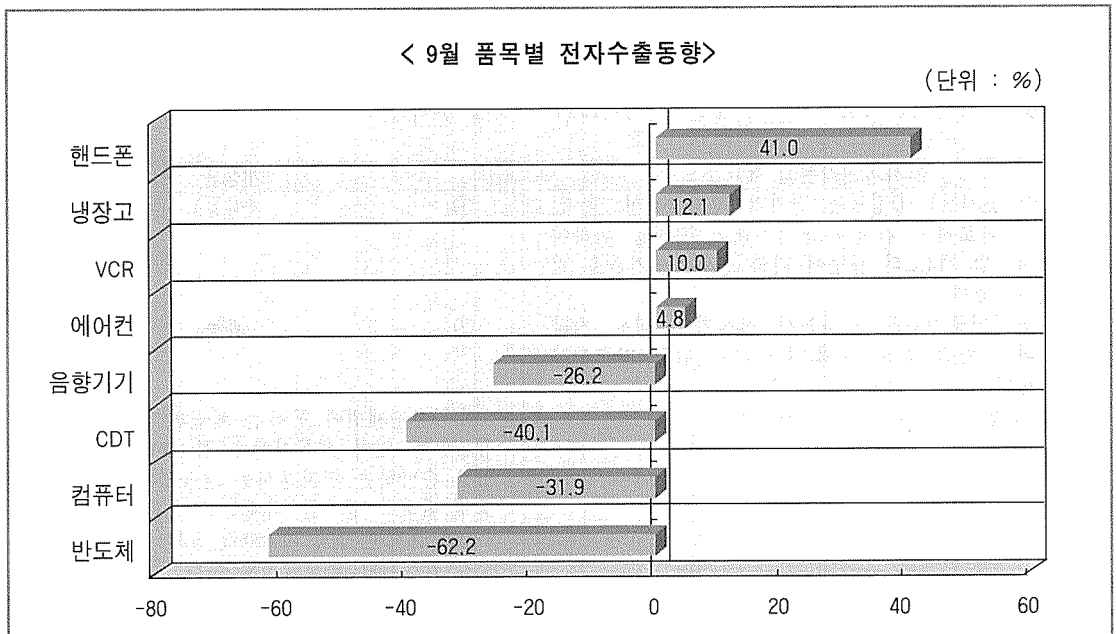
9월중 총무역흑자는 8억 6,900만달러이고, 전자무역흑자는 14억 4,300만달러에 달했다.

총수출감소액 가운데 전자수출의 비중이 78.2%에 달했고, 반면 전자무역 흑자가 총무역흑자를 상회함에 따라 전자의 총무역흑자 기여도가 166%에 이르게 되었다.

전자수출의 총수출점유율은 34.2%로 전년 동월의 41.6%에서 상당히 줄었으나, 전자산업이 수

〈 9월 품목별 전자수출동향〉

(단위 : %)



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, 그 역할이 매우 중차대함을 보여주고 있다.

품목별 동향을 조사해보면, 반도체가 62.2%로 최고의 감소율을 보였다.

반도체의 수출감소폭 16억 4,000만달러는 전자수출 감소 기여도가 81.6%이고 총수출 감소 기여도가 63.8%에 해당,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.

하지만, 향후 반도체가격이 회복될 때에는 수출의 급격한 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.

컴퓨터 수출은 9억 2,900만달러로 31.9%(4억 3,500만달러) 감소하였다.

반도체와 컴퓨터, 두 품목의 수출감소 합계액은 20억 7,500만달러로 전자수출감소액을 상회했다.

이와 함께 모니터브라운관(CDT)도 40.4%, 음향기기가 26.2% 각각 감소하였다.

세계 IT산업이 침체가 우리 수출에 대단히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하고 있음을 통계가 잘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.

반면, 핸드폰은 7억 500만달러로 41.1% 증가했고, 전통적인 가전제품인 냉장고는 11.5%, 에어컨은 4.5%, VCR은 10.0% 각각 늘어났으며, 특히 캠코더는 3,300만달러로 725.0%라는 놀라운 수출 기록을 이룩했다.

국가, 지역별 동향을 조사해보면, 대미 전자수출은 10억 6,000만달러로 42.7%나 큰 폭 감소하였다. 미국의 IT산업의 악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. 일본과 EU로의 전자수출은 47.4%, 34.3% 각각 감소하였으나, 대중 전자수출은 1.4% 감소하는데 그쳤다. 중남미지역으로 전자수출은 14.9% 줄었으나, 중동지역으로 전자수출은 27.5% 늘어났다.

< 9월 국가별 수출동향 >

(단위 : %)

